

아이히만 논쟁 : 악의 평범성과 비범성

- 베티나 슈탕네트,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이동기 이재규 옮김 (글항아리, 2025) 비평 -

정용숙*

국문요약

본 논문은 베티나 슈탕네트의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비평이다. 슈탕네트는 ‘사선 문서’를 비롯한 방대한 미공개 자료를 통해 아이히만이 신념에 따라 학살을 주도한 ‘악한 사유(evil thinking)’의 주체였음을 성공적으로 논증함으로써, 한나 아렌트의 ‘무사유(thoughtlessness)’에 근거한 ‘악의 평범성’ 주장을 반박하고 역사적 인물로서 아이히만을 복원했다. 본고는 슈탕네트의 해석에 대한 비평과 아렌트에 대한 당대 비판을 비교 분석하여 각자의 시대적·사회적·학문적 맥락을 조명한다. 본 비평의 목적은 두 해석의 우열을 가리기보다 양자의 관점이 홀로코스트 가해자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홀로코스트 가해자 연구(Täterforschung)의 흐름 속에서 슈탕네트 연구의 위상을 진단한다. 그의 연구는 아이히만을 역사적 인물로 복원하여 가해자 연구에 공헌했으나,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의 분석에 몰두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비역사적 접근’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주제어: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악한 사유, 베티나 슈탕네트, 가해자 연구

*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jungys@cnue.ac.kr

“내게는 타고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애쓰지 않아도 신경 끄고 재빨리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히만) (슈탕네트 2025, 478)

I. ‘악의 평범성’을 다시 묻다

이 비평 논문의 대상은 2011년 독일어로 출간되고 2014년 영문으로 번역되어 논쟁을 촉발한 독일의 철학자 베티나 슈탕네트(Bettina Stangneth)의 야심작,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Eichmann vor Jerusalem)』 한국어 번역본이다. 이 책은 2025년 1월 글항아리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1961년 예루살렘 법정의 방탄유리 부스 안에 있던 아이히만은 정치 이론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1963)을 통해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의 화신으로 각인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 없는 천생 관료’이자 ‘거대 시스템 속 일개 톱니바퀴’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슈탕네트의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은 바로 이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대량학살자의 밝혀지지 않은 삶’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요지는, 아렌트가 아이히만이 치밀하게 연출한 위장술에 속았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의심의 여지 없는 통찰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었다. 악이란 특별한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출 때 저지를 수 있다는 경고는 강력한 도덕적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슈탕네트의 책은 바로 이런 생각을 허문다. 아렌트는 틀렸으며, 심지어 아이히만의 교활한 연극에 속았다는 것이다.

슈탕네트는 집요하고 끈질긴 사료 추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증한다. 이 책의 서술 방식은 학술 역사서보다 탐사 저널리즘에 가깝다. 아르헨티나와 독일 등지에 흩어져 있던 아이히만의 미공개 기록, 특히 네덜란드 출신 나치 언론인인 빌럼 사선(Willem Sassen)과 나눈 방대한 대화를 근거로 예루살렘 법정에 서기 전의 아이히만을 살살이 파헤친다. 핵심 자료는 ‘아르헨티나 문서’로도 알려진 ‘사선 녹취록’(Sassen Papers)이다. 이 기록에서 드러나는 아이히만의 모습은 아렌트가 묘사한 ‘진부하고 상투어에 찌든 관료’와는 정반대다. 자신의 학살 행위를 자랑스러워하고, 확고한 신념을 지닌 나치

였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역사적 업적으로 포장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유하는’ 악당이였다. 이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은 아이히만의 가면을 벗겨내는 스틸러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을 제안하고 공동 번역자로 참여한 이동기 교수는 오래전부터 이 논의를 국내에 소개해왔다. 필자는 2015년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고정 칼럼 ‘현대사 스틸컷’에 실린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 속았다」(이동기 2015)를 통해 이 논쟁을 처음 접했다. 이동기 교수는 한국어 번역서 출간 이후인 2025년 7월 19일, 서울 마포 ‘연구자의 집’에서 열린 냉전학회 북토크에서 이 책의 번역을 추진한 동기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악의 평범성’에 관한 비판적 논의는 1990년대 말 독일 유학 시절 이미 접했으며, 알프 뢰트케(Alf Lütke) 교수의 일상사 수업에서도 다루어진 주제였다. 그는 학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한국에서 전쟁과 식민지 시기 국가폭력에 관한 논의가 손쉽게 ‘악의 평범성’으로 귀결되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2009년 가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발간 2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가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나치 외무부 관료들의 범죄 가담을 다룬 논문을 발표했으나, 여러 우여곡절 끝에 널리 공개되지 못했다. 2011년 슈탕네트가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을 독일어로 출판했을 때 책과 서평들을 접했고, 이를 바탕으로 쓴 글이 시사 주간지 칼럼을 거쳐 『현대사 몽타주』(이동기 2018)의 한 장으로 출간되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독재나 폭력은 단순히 위로부터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역동성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한 예다). 그렇기에 ‘악의 평범성’ 같은 손쉬운 이해보다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가해자 연구가 폭력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국역 작업은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 연구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II. ‘무사유’ 대 ‘악한 사유’

1. ‘악’의 진단: 근원과 동력

‘악의 평범성’은 아렌트가 아이히만 재판 참관기를 엮어 1963년 펴낸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부제,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에 사용된 개념이다. 아렌트는 책의 후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이 개념을 직접 설명했다. 훗날 자신의 개념이 오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는 항상 ‘우리 각자 안에 아이히만이 있다’는 식의 말을 싫어했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 이는 그 정반대 주장, 즉 아이히만이 누구 안에도 없다는 주장만큼이나 틀린 것이다”(Arendt 1979, 308).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통해 진정으로 말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히만의 ‘죄’가 평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인간’이 너무나 평범해서 섬뜩하다는 의미였다. 그가 본 아이히만은 끔찍한 범죄자가 아니라 “끔찍할 만큼 정상적”(terrifyingly normal)인 인물이었다. 아이히만의 핵심 특징은 ‘무사유’(thoughtlessness)였는데, 이는 지능이 낮은 ‘어리석음’(stupidity)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아렌트에게 ‘사유’(think)란 칸트(Immanuel Kant) 철학에 기대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to think from the standpoint of somebody else), 즉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의미일지 성찰하는 내적 대화(자기와의 대화)를 의미했다. 아이히만에게는 바로 이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상부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료 조직 내 승진에만 몰두했을 뿐, 자신의 서명이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드는 현실은 ‘몰랐다’기 보다 ‘중요하지 않게’(unwichtig) 여겼다. 상투어와 클리셰로 가득한 그의 언어는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였고,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슈탕네트는 이것이 아이히만의 교활한 연기에 속은 결과라고 단언한다. 슈탕네트가 복원한 아이히만은 결코 생각 없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깊이 신봉했으며, 유대인 절멸을 자신의 역사적 소명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학살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효율성과 규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일관된 논리와 철학까지 갖춘, 심지어 ‘사상가’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다만 아이히만의 ‘사유’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도덕적

사유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이고 전략적인 사유였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나름 치열한 사유였다. 결론적으로 아이히만의 악행은 사유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사유’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아렌트와 슈탕네트의 견해는 극명하게 갈린다. 아렌트는 악의 근원을 ‘사유의 부재’에서 찾았지만, 슈탕네트는 ‘악한 사유’ 또는 ‘뒤틀린 사유’가 악의 동력이라고 보았다. 아렌트에게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아렌트 2006, 391) 인물이었지만, 슈탕네트의 아이히만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 잘 알았고, 그 일을 상부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했으며, 심지어 그 행위에서 자부심마저 느낀 인물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없어서’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사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괴물이 되었다는 것이 슈탕네트의 핵심 논지다.

같은 인물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두 철학자의 이론적 출발점이 모두 칸트라는 점은 흥미롭다. 슈탕네트는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을 출간한 뒤, 칸트와 아렌트, 그리고 자신의 ‘악’ 개념을 비교한 『악한 사유』(*Böses Denken*)(Stangneth 2016)를 추가로 펴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칸트에게 ‘악’(das Böse)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근원적 특징이기에 ‘근원악’(das radikale Böse)이라 불린다. 이는 인간의 부도덕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 악이 절대적이거나 극단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 재판에 참관한 후, 이를 칸트의 ‘근원악’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악으로 규정하고 ‘악의 평범성’ 개념을 고안했다. 이는 ‘순전한 생각 없음’(schiere Gedankenlosigkeit)을 의미한다. 아렌트에게 도덕성(Moralität)은 ‘생각’(Denken)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의식적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악의 원인이 된다. 슈탕네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이 단순히 ‘생각 없음’의 결과가 아니라 이성을 체계적으로 악용하는 고도의 지적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한 사유’(böses Denken)’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2. 사선 문서: ‘악한 사유’의 증거

슈탕네트는 무엇을 근거로 아이히만의 ‘악한 사유’를 주장하는가? 그 결정적 증거는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네덜란드 출신 나치 언론인 빌럼 사선과 진행한 인터뷰 기록, 이른바 ‘사선 문서’이다. 이 문서는 슈탕네트 논증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의 존재 이유 그 자체다. 이 문서는 아이히만이 1957년경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사선을 비롯한 나치 잔당 모임에서 진행한 긴 대화의 기록이다. 슈탕네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자신의 ‘위업’을 후세에 남기고 나치즘이라는 신념을 변호하기 위해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기록은 아이히만이 체포된 후 언론에 일부 공개되었고, 아렌트 역시 재판 당시 『라이프』(*Life*)지에 실린 발췌본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슈탕네트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녹취록 원본과 방대한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복원하여 (그 노고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가 바로 번역본 기준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역작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이다.

이 문서에 담긴 아이히만의 육성은 ‘책상머리 살인자’(Desk Murderer)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신중한 관료, 그제 바로 나였습니다”(슈탕네트 2025, 514).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슈탕네트 2025, 515) “1,030만명의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1,030만명을 죽였다면 나는 만족스러워할 것이고, 좋다고, 우리가 적을 말살했다고 말할 것이라고요”(슈탕네트 2025, 516). 아이히만의 나치 동료 하나는 그가 “웃으면서 무덤으로 뛰어들었을 것”(슈탕네트 2025, 504)이라고 증언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아이히만이 유대인 학살을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나치 동료들을 향해 자신이 유대인 문제의 ‘전문가’이자 ‘광신도 전사’임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는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완전히 판판이다. 슈탕네트의 주장에 따르면, 예루살렘 법정에서의 모습은 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벌인 연기였다. 어떻게 보여야 책임을 줄일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렌트가 본 것은 아이히만의 본질이 아니라, 그의 성공적인 ‘거짓말’이었다고 슈

탕네트는 논증한다.

물론 이것이 슈탕네트의 새로운 발견은 아니다. 예루살렘 법정의 세 판사 역시 아렌트와는 달리 아이히만의 모습이 연출된 자기 묘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Hauff 2012, 132). 역사가 데이비드 세자라니(David Cesarani) 또한 아렌트가 재판 전체를 방청하지 않고 제한된 자료만으로 아이히만을 평가했다고 비판하며 그의 범죄자적 면모를 강조했다(Cesarani 2006). 그러나 슈탕네트는 아렌트가 방대한 재판 기록 전체를 읽었다고 변호하면서도(슈탕네트 2005, 822), 그가 법정에서의 아이히만, 즉 교활하게 연기된 모습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한다. 아이히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전’, 특히 195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보낸 10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시기는 감시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냈던 때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시절의 아이히만은 추적을 피해 은둔하는 ‘나치 잔당’이 아니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Ricardo Klement)라는 가명을 썼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나치 네트워크에서 그의 정체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아이히만은 이 커뮤니티에서 ‘유대인 문제 전문가’라는 명성을 붙잡고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 했다. 그는 평생 그랬듯 익명의 삶을 견디지 못했고,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슈탕네트 2025, 232).

페론 정권의 비호 아래 활동하던 아르헨티나의 나치 네트워크, 이른바 ‘사선 서클’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나치의 정당성을 재확립하려는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책의 4장 2절 ‘대화하는 아이히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핵심 멤버 중에는 폴란드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친위대 고위 간부 루돌프 폰 알벤슬레벤(Rudolf von Alvensleben)도 있었다. 그들이 아이히만에게 기대했던 것은, 600만 학살이라는 숫자가 거짓말임을 ‘반박’해 줄 ‘전문가 증언’이었다. 그러나 아이히만은 그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자신이 부인해야 할 사실들을 오히려 넘치도록 확인시켜주는 역설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괴상한 자백의 증인이 되어, 그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말았다”(슈탕네트 2025, 520). 아이히만의 허영심과 인정욕은 유대인 학살에서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 지식을 떠벌리게 만들었다. 결국 ‘사선 문서’는 아이히만의 과시욕과 나치 잔당의 ‘역사 부정’이라는 엉뚱한 계획이 기괴하게 만나 빚어낸, 동상이몽의 희극적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여담이지만, 이 서클의 활동은 훗날

데이비드 어빙(David Irving) 같은 역사부정론자들의 재판으로 이어진다.

아이히만의 ‘예루살렘 이전’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훗날 예루살렘 법정에서 그가 쓴 가면의 재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 모사드에 납치되어 재판을 받게 된 아이히만은 수동적 인물로 보여야 유리하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는 이미 1956년 원고 저술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 훈련을 완벽히 마친 상태였고, “2차 문헌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심문을 선취한 셈이었다”(슈탕네트 2025, 463). 그렇게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의 확실히 나치 모드를 버리고, ‘평범한 관료’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창조했다. 자신이 가졌던 힘과 영향력을 숨겨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였다. 아렌트가 보고 분석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페르소나였던 것이다. “그녀는 아이히만이 쓴 긴 에세이들을 알지 못했다”(슈탕네트 2025, 378). 따라서 슈탕네트에게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허구인지를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Ⅲ. 수용과 비판: “아렌트는 틀렸는가?”

1. 슈탕네트 연구에 대한 평가

아이히만 재판 50주년이던 2011년 독일에서 출간된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은 공론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국제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대서양 양안의 지성계는 슈탕네트의 방대한 아카이브 탐구와 새로운 사료 발굴이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바꾸었으며, “독일이 그를 재판하지 않으려 했던 태도를 조명”(Schuessler 2014)했다고 환영했다. 저자 스스로 자신의 연구를 “한나 아렌트와의 대화”(슈탕네트 2025, 18)로 규정한 것에 대해, 독일 역사학계는 이 책이 아렌트의 견해에 대한 심층적 대화를 제시했다고 화답했다(Krause 2011). 이 책은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해석을 재평가하여 학계의 논쟁을 촉발했으며(Faille 2015), 아이히만 연구의 전환점으로서 ‘악의 평범성’ 이론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평가(Wolin 2014)도 나왔다.

독일 역사 연구자들의 온라인 포럼인 H-Soz-Kult에 게재된 학술 서평

(Krause 2011)은 이 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이 서평은 슈탕네트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흩어진 자료를 엮어 아이히만의 전후 행적과 내면세계를 재구성한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또한 아이히만을 둘러싼 아르헨티나의 나치 망명자 커뮤니티, 그들의 내부 논쟁, 그리고 나치즘 재건이라는 허황된 계획 등을 생생하게 복원한 것을 가해자 집단과 망명 네트워크 연구에 대한 중요한 학술적 기여로 인정했다. 그러나 책의 서술이 지나치게 저널리즘이어서 학술적 엄밀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역사가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대한 정보량과 복잡한 서사가 독자의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필자 역시 이 방대한 책의 첫 3분의 1가량을 읽는 동안,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물들의 이름과 복잡하게 얽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는 책의 내용과 주장과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며, 독일 학계의 평가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다. 또한 저널리즘적 서술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방대한 사료에 의해 탄탄히 뒷받침되기에 학문적 엄밀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전문 연구자와 일반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 가해자 연구 분야의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자리잡았다. 예컨대 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인 zeitgeschichte-digital.de에 게재된 반제 회의(Wannsee Conference) 관련 논문(Mentel 2013)은 아이히만의 진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핵심 연구로 슈탕네트의 책을 인용한다. 이는 슈탕네트의 연구가 아이히만 재판 기록이나 증언 같은 기존 사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재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아이히만이나 나치 관료제를 연구할 때, 슈탕네트가 제시한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즉 신념으로 무장하고 자기 연출에 능했던 모습을 고려하지 않기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슈탕네트의 주장이 ‘악의 평범성’을 무력화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아렌트의 해석이 아이히만의 진면목을 왜곡했고 ‘악의 평범성’이 그의 책임을 축소한다는 비판(Wolin 2014)에 대해, 아렌트 옹호자들은 아렌트 비판자들이 ‘무사유’ 개념을 단순화한다고 맞받았다(Benhabib 2014). 그것은 ‘지능이 낮음’이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의 부재, 즉 ‘판단력 실

패’(순응)라는 훨씬 복잡하고 철학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아이히만은 생각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주장은 아렌트가 제기하지도 않은 쟁점을 반박하는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가 리처드 에번스의 평가는 보다 신중하다(Evans 2014). 그는 기본적으로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과소평가했으며 슈탕네트가 아이히만의 내면과 행적을 좀 더 정확하게 복원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아이히만의 ‘광적인’ 반유대주의와 적극적 역할을 입증한 것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개념을 “영구적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사선 녹취록 역시 아이히만의 허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칸트를 엉터리로 인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치밀한 연출’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에번스는 슈탕네트가 아이히만의 ‘사유’를 과대평가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역사가 제프 일리(Geoff Eley) 역시 슈탕네트의 연구가 “새롭게 떠오르는 학문적 합의를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지만, “이것이 ‘악의 평범성’을 완전히 폐기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Eley 2015)라고 지적했다.

홀로코스트 가해자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Browning)은 슈탕네트가 발굴한 사료를 통해 아이히만이 단순한 명령 복종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확신범’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한다(Browning 2015). 그는 또한 아이히만의 망명 생활에서 드러난 자기 과시적 태도와 반유대주의 신념을 상세히 복원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렌트의 ‘무사유’ 개념이 갖는 철학적 도덕적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 두 관점의 상호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다. 슈탕네트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악의 평범성’이 주는 도덕적 경고와 사회적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슈탕네트가 비난하는, ‘악의 평범성’을 관성적으로 맹신하는 “역사학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반문하며, 가해자 연구 성과에 대한 무시와 “홀로코스트 역사학자에 대한 경멸”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방법론 측면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슈탕네트가 아이히만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는 지적(Kelly 2016)인데, 일부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히만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넷째 아들(나치는 네 자녀를 장려했다)이 태어났던 때(1955년)를 떠올리며 “나를 짓밟으려 했던 세력에 맞서 승리한 자유와 생명의 상징”(슈탕네트 2025, 295)이라

고 뿌듯해한 것은 기록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유대인을 다 살해하지는 못했지만 (...), 넷째 아이를 가짐으로써 그 명령을 이행했다. (...) 인종 투쟁에서 생식 능력은 가장 탁월한 무기였다. 아이히만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투철한 신념을 갖고 의무를 이행했다”(슈탕네트 2025, 304)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게 느껴진다. 에번스 역시 슈탕네트가 아이히만의 허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슈탕네트 역시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은 아닐까? 아르헨티나에서 넷째 아들이 태어난 것을 나치 이데올로기의 실천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의미 부여로 보인다.

2. 아렌트와 슈탕네트가 받은 비판의 맥락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사료 발굴과 인물 복원에 집중된다. 흩어져 있던 ‘사선 문서’와 아이히만의 각종 미공개 기록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집대성하여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의 내면과 행적을 상세히 복원했다는 점에는 거의 의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악의 평범성’ 사회 시스템과 개인들의 무책임이 결합할 때 악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로서 ‘악의 평범성’의 메시지가 상대화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유’ 개념에 대한 해석과 철학적 판단일 것이다. 슈탕네트가 『악한 사유』(Stangneth 2016)를 통해 ‘악’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보완 설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 이 책에서 슈탕네트는 아렌트의 논지를 오해하거나 단순화했다기보다는, 칸트가 제시한 ‘악’의 개념을 아렌트가 확장했듯이 자신은 아렌트를 넘어 ‘악’의 동력으로서 ‘사유’의 역할을 재평가하고자 했다. 요컨대 사유의 유무보다 ‘어떤’ 사유 인가가 중요하며, ‘무사유’ 보다 ‘악한 사유’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이 책이 아직 독일어 판본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출간 전부터 뉴욕의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비난에 휩싸였고, 독일에서는 저명한 역사가 한스 Mommsen(Hans Mommsen)의 비판적 서문을 붙여 출간해야 했을 만큼 논쟁적인 책

이었다. 슈탕네트의 책이 오늘날 받는 비판과 아렌트의 책이 당시에 받았던 비판을 비교해 보면, 두 논쟁이 단순히 학문적 견해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사회적, 역사적, 학문적 맥락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렌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유덴라트)이 나치에 협력했다고 서술한 부분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난을 특히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받았다. 또한 ‘악의 평범성’이 홀로코스트의 끔찍함을 희석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독일에서의 비판은 맥락이 또 달랐다. 예를 들어 몸젠은 독일어판 서문(Arendt 1984, 9-48)에서 아렌트가 역사적 맥락을 경시하고 철학적 개념을 성급하게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독일 역사학계에서는 나치 체제를 거대한 비인격적 구조와 관료제의 작동으로 설명하려는 구조주의 경향이 강했다. 특히 몸젠은 아이히만을 히틀러의 직접 명령 없이도 아래로부터 경쟁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 ‘누적적 급진화’(cumulative radicalization)(Jones 2018)의 산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렌트가 아이히만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무사유’에 집중한 것은 비역사적 접근으로 비쳤다.

또한 당시 서독 사회는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의 측근 한스 글롭케(Hans Globke)처럼 전직 나치 관료가 여전히 권력의 중심부에 남아 있는 등 ‘불충분한 탈나치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슈탕네트는 책에서 아데나워 정부가 글롭케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히만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언급한다(슈탕네트 2025, 594). 당시 서독과 미국 정부가 불충분한 탈나치화나 기타 정치적 이유로 아이히만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도 도덕적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독일에서 아렌트의 책은 이런 상황에서 출간되었기에, 가해자들의 무책임을 변명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타당한 우려가 컸고, 그에 따른 비판적 저항 역시 강했을 것이다.

슈탕네트가 오늘날 받는 비판은 결이 다르다. 그의 사료 발굴 성과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비판의 초점은 주로 아렌트 철학에 대한 그의 해석에 맞춰져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렌트의 ‘무사유’ 개념을 납작하게 이해하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또한, 슈탕네트가 아이히만을 너무 예외적이고 악마적인 인물로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아렌트가 경고했던 ‘시스템 속에서 평범한 사람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시 말해, 아렌트에 대한 비판이 주로 비역사

성과 정치적 불편함에 관한 것이었다면, 슈탕네트에 대한 비판은 철학 개념 해석의 타당성과 이론적 함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V. 악의 ‘평범성’과 ‘비범성’을 넘어서

1. 악의 ‘복합성’을 사유하다

누가 맞고 틀렸는지 가리는 일을 잠시 멈추고, 아렌트와 슈탕네트 각자의 관점이 홀로코스트라는 거대 악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유효한지로 논점을 바꿔보면 어떨까? 두 사람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악의 서로 다른 측면을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슈탕네트의 연구는 ‘악의 평범성’이 모든 가해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렌즈는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적어도 아이히만 같은 ‘설계자’ 혹은 ‘주도자’는 ‘사유하는 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악행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다수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가능할까?

홀로코스트와 같은 거대 악은 단일 원인이나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홀로코스트 연구는 가해자들이 배경과 동기에서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귄터 레위(Günter Lewy) (2017)는 가해자를 설계자(architect), 이데올로그/집행자(ideologue/executioner), 동조자(accomplice)와 방관자(bystander) 등 다양한 범주로 체계화했다. 설계자, 이데올로그, 집행자 범주에 속하는 히틀러나 힘러(Heinrich Himmler), 그리고 아이히만에게 ‘무사유’를 적용한다면, 이는 그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나오는 예비경찰대 대원들의 경우는 어떨까? 원래 “평범한 사람들”(ordinary men)이었던 이들은 권위에 대한 복종, 동료 집단의 압력, 그리고 점진적인 폭력예의 무감각화 과정을 통해 학살 집행자가 되었다. 그들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무사유’와 ‘순응’ 개념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브라우닝의 연구는 그들 사이에도 여러 층위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저항도 가담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난 사람부터, 점점 더 가학적인 학살 행위를 즐기게 된 사람까지 다양했다(브라우닝 2023). 마지막으로, 악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

지만 침묵이나 암묵적 동조를 통해 시스템 유지를 도운 다수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과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사유’를 멈추었다는 점에서 ‘평범한 악’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히만은 자발적 창조성을 발휘한 적극적 행위자였고, 그런 그에게 ‘악의 평범성’이 적용될 수 없음은 확실해 보인다. 그와 비교될 만한 인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루돌프 회스(Rudolf Höss)를 들 수 있다. 비교적 늦게 나치즘에 입문한 아이히만과는 달리, 일찍부터 나치에 헌신해 친위대에서 출세한 회스는 학살의 ‘현장 집행자’로서 ‘최종 해결’의 효율적 실행자였다. 그럼에도 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제3제국이 만든 거대한 절멸 기계의 톱니바퀴”(Höss 1992, 186)라고 칭하며 아이히만과 똑같은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두 사람은 1941년 여름 아우슈비츠에서 구체적인 학살 방법을 논의한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Yad Vaseem, 2016). 회스는 총살 대신 가스 사용이 결정되자 “안도했다”(Höss 1992, 157)고 회고했는데, 이는 희생자의 고통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해자인 자기 부하들의 심리적 타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히만 역시 학살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지는 않았다. “살인에 ‘불필요한 잔인성’을 동반하지 말라는 힘러의 요구만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리였다’”(슈탕네트 2025, 455). 이들은 대량 학살을 즐긴 사디스트는 아니었지만, ‘직업적 살인’의 ‘작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혁신을 거듭한 창조적 설계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회스와 그 가족을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2024년 한국에서 개봉되었을 때 필자는 ‘악의 평범성’을 언급했다가 이동기 교수의 반론을 받았다. 필자는 그것이 영화의 의도라고 보았다. 감독 스스로 여러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이 “초자연적 존재”가 아닌 “26번가에 사는 스미스 부부”(Oppenheimer 2023)와 같은 평범한 사람임을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영화는 회스 가족의 일상을 ‘빅브라더’ 스타일의 고정 카메라로 촬영해 관객이 마치 ‘몰래카메라’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연출함으로써, 나치 가해자와 자신들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했다. 이 영화는 회스의 극단적 이중성(심리적 ‘구획화’ 기제)을 통해 악이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고 사람들이 끔찍한 일에 무감각해지는지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슈탕네트의 주장을 따른다면, 이는 ‘악의 평범성’을 관성적으로 이해한 결과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다.

슈탕네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여러 층위의 가해자들에게 ‘악의 평범성’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며 최상위 핵심 설계자에게까지 면죄부를 주었던 지적 나태함을 지적한 데 있다. 아이히만을 제대로 최상위 가해자의 자리에 돌려놓음으로써, 악의 핵심 동력과 주변부 동력을 구분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렌트와 슈탕네트는 각자 악의 다양한 층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관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비극이 어떻게 적극적인 ‘악한 사유’와 광범위한 ‘무사유’의 끔찍한 협업을 통해 가능했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홀로코스트 가해자 연구

홀로코스트나 국가폭력 같은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교육할 때, 우리는 보통 피해자의 고통과 증언에 집중한다. 피해자 증언은 ‘무슨 일’(What)이 일어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알려준다. 반면 가해자 연구(Täterforschung)는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How) 가능했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홀로코스트 연구의 목표 중 하나는 제노사이드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그러려면 누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조건에서 가해자가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을 단순히 ‘악마’나 ‘괴물’로 치부하고 외면하면 이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야드 바셈(Yad Vashem)의 교육 자료(Yad Vashem 2023) 역시 가해자를 비인간적인 괴물로만 보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가해자 연구는 그들이 어떻게 가해자가 되었는지, 그들의 동기, 심리, 자기 정당화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악의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권위주의의 위험성, 그리고 인종차별과 증오의 파괴력에 맞서는 힘을 길러 준다.

홀로코스트 가해자에 관한 관심은 종전 직후 책임 문제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히틀러를 비롯한 소수의 최고 지도자에게 책임이 집중되었고, 일반 가해자들은 구제할 수 없는 악당이나 괴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이히만 재판은 이러한 관점을 대중적으로 변화시킨 계기였다. 이

후 가해자 집단에 관한 관심은 군대, 경찰, 관료, 전문직, 그리고 유럽 각국의 협력자들까지 확장되었다. 이런 전환의 중심에는 아렌트 외에도, 아이히만 재판이 열린 해에 출간된 라울 힐베르크(Raul Hilberg)의 기념비적 연구 『유럽 유대인의 파괴』(1961)가 있었다. 가해자 분석은 개인의 심리나 이데올로기적 신념에서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한 관료 시스템과 구조로 이동했고, ‘가해자 연구’가 홀로코스트 연구의 한 분야로 성장했다.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동유럽 문서고가 개방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고, 가해자 연구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학계의 논의는 ‘구조’에서 다시 ‘인간’으로, 즉 가해자의 ‘동기’(motivation)로 회귀했다. 1992년 출간된 브라우닝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가해자의 행위 동기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를 계기로 분석의 초점은 거시적인 이데올로기(나치즘)나 구조(관료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적 동기, 동료 집단의 역학, 학살 현장의 미시적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심화되었다. ‘왜’라는 질문은 ‘어떻게’와 결합하여 더욱 정교해졌다. 하랄드 벨처(Harald Welzer)의 연구(Welzer 2005)는 권위에 대한 복종, 동조 압력, 전쟁 상황의 비인간화 등 ‘상황’과 ‘집단 심리’에 주목하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개인이 어떻게 거대한 악의 시스템에 동원되고 순응하는지를 탁월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과 비교할 때, 슈탕네트는 구조나 상황보다 가해자 개인의 내면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이 점에서 슈탕네트의 책은 아렌트가 아이히만 개인의 분석을 통해 ‘악’의 근원을 탐구한 것과 동일한 전략을 취한다. 아이히만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악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의 방향은 정반대다. 슈탕네트는 아이히만을 시스템의 부품이나 상황의 수동적 희생자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그의 사상, 신념, 논리, 거짓말을 분석함으로써 아이히만이 자신의 악행을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정당화하는 ‘주체’였음을 밝혀냈다. 가해자를 외부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그리는 기존의 주장에 맞서,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생각하는 가해자’라는 대립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가해자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가해자 연구의 지평을 개인의 내면과 사상이라는 차원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헌이다.

그러나 역사학적 가해자 연구라는 틀에서 본다면, 슈탕네트는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의 분석에 몰두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역사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브라우닝과 벨처 등의 연구는 중앙의 거시적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주도권을 쥐며 학살을 급진화시킨 구체적인 과정의 역동성에 주목했다. 울리히 헤르베르트(Ulrich Herbert)는 홀로코스트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의 반유대주의와 기회주의가 결합한 현상이었으며, 가해자 집단 역시 단일 동기를 가진 동질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복잡한 동기와 이해관계 속에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였다고 정리했다(Herbert 2016). 최근에는 가해자를 개별 행위자로 보기보다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이 얽힌 네트워크 속의 행위자로 파악하는 경향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 개인에서 프로세스, 네트워크, 상호작용으로 옮겨가고 있다(Busch 2023). 이러한 접근법은 여러 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경쟁, 협력, 정보 교환이 어떻게 학살이라는 결과를 낳았는지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홀로코스트 가해자 연구의 성과는 이미 풍부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이 아렌트와 슈탕네트의 주장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V. 역사적 폭력 연구를 향하여

슈탕네트의 연구는 역사적 인물로서 아이히만에 대한 평가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악이란 무엇인가?’, ‘거대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가해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진다. ‘무사유’가 악의 근원이라는 오래되고 익숙한 진단을 반박하고, 오히려 그 반대, 즉 ‘악한 사유’가 괴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조직이나 이념의 논리에 매몰되어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은 과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은 악의 본질과 동력을 더욱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성찰할 기회를 준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 없이’(!) ‘악의 평범성’을 방만하게 이야기 왔던 관성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생각 없이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아렌트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슈탕네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악이 때로는 확고한 신념과 정교한 논리를 가진 ‘사유하는 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직시하라고 요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럴듯한 논리,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교묘한 이데올로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계산된 거짓말. 이런 것들은 ‘생각 없음’의 산물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정교한 ‘악한 사유’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궁극적 문제의식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로 귀결될 것이다.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이나 시스템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비판적 사유는 기본이다. 더 나아가 나의 신념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도덕적 사유, 즉 아렌트가 강조했던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하다. 다만, 이제는 단순히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보면서 ‘저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다’고 손쉽게 단정하기보다, ‘저들은 어떤 생각과 논리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난 80여 년간, 홀로코스트 연구에서 가해자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왔고, 이는 인간의 ‘악’에 대한 인식 지평을 넓혔다. ‘가해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는 ‘소수의 악마’에서 ‘체제에 순응하는 무사유의 관료’로, 다시 ‘상황에 내몰린 평범한 사람들’을 거쳐 ‘복합적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동기로 움직이는 이질적 행위자들’로 진화해 왔다. ‘왜?’라는 질문은 ‘어떻게?’로 확장되면서 인간의 폭력성, 현대 사회의 구조적 위험, 그리고 역사적 책임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심화시켰다. 1999년 미국 워싱턴 DC 홀로코스트 기념관 강연에서 한스 Mommsen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 학살 연구에서 역사학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철학, 사회과학, 문학, 예술도 이 주제에 공헌하지만, 조직적 대량 학살과 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행정적, 심리적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역사 연구의 과제라는 것이다(Mommsen 1999). 홀로코스트를 역사적 사건과 구조의 틀 안에서 파악하는 맥락적 이해가 없다면,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어쩌서 그런 공포의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 어쩌서 히틀러 같은 인간이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유럽 유대인 제거라는 목

표를 추구하는 것을 서방 세계가 막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엄청난 폭력을 초래한 메커니즘을 배우려는 동기를 제공한다. 홀로코스트 가해자 연구의 학문적 성과와 방법론적 성찰이 우리에게도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슈탕네트의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된 것은 단순한 학술서의 소개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도달한 시점은 과거사 정리와 역사적 기억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아렌트와 슈탕네트가 제기한 문제들은 홀로코스트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했지만, 그들의 논쟁이 던지는 근본적 질문들—가해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악의 본질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개인의 책임과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가—은 보편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국가폭력 과거사 정리와 씨름하는 우리 사회에, 가해자 연구가 제시하는 다층적 접근법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은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번역서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정용숙은 독일 현대사 및 사회사 연구자로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에서 역사와 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산업유산, 공공역사, 기억문화에 관한 논문 및 저서가 있다.

참고문헌

- 브라우닝, 크리스토퍼. 2023. 『아주 평범한 사람들. 101예비경찰대대와 유대인 학살』. 이진모 옮김. 서울: 책과함께.
- 슈탕네트, 베티나. 2025.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대량학살자의 밝혀지지 않은 삶』. 이동기·이재규 옮김. 파주: 글항아리.
- 아렌트, 한나.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선옥 옮김. 서울: 한길사.
- 이동기. 2015.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 속았다」 『한겨레21』 (1월 27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38883.html> (최종검색일: 2025.9.28).
- 이동기. 2018. 『현대사 몽타주: 발견과 전복의 역사』. 파주: 돌베개.
- Arendt, H. 1979. "On Hannah Arendt." In *Hannah Arendt: The Recovery of the Public World*, edited by Melvy A. Hill. New York: St. Martin's Press.
- Arendt, H. 1986. *Eichmann in Jerusalem. Ein Bericht von der Banalität des Bösen*. Vorwort von H. Mommsen. München: Piper Verlag.
- Benhabib, Seyla. 2014. "Who's On Trial: Eichmann or Arendt?"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1. <https://opinionator.blogs.nytimes.com/2014/09/21/whos-on-trial-eichmann-or-anrendt/> (검색일: 2025.9.27.).
- Browning, Christopher R. 2015, "Bettina Stangneth, Eichmann before Jerusalem: The Unexamined Life of a Mass Murderer." *Genocide Studies International* 9(2).
- Busch, Christophe. 2023. "Perpetration: from demons and desperados to processes of perpetration." *Témoigner. Entre Histoire et Mémoire* <https://doi.org/10.4000/temoigner.11816> (검색일: 2025.9.28).
- Cesarani, David. 2006. *Becoming Eichmann: Rethinking the Life, Crimes and Trial of a "Desk Murderer"*. Boston: Da Capo.
- Eley, Geoff. 2015. "Eichmann before Jerusalem: The Unexamined Life of a Mass Murderer by Bettina Stangneth (review)."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Jewish Studies* 33(4) DOI: 10.1353/sho.2015.0031

- Evans, Richard. 2014. "Eichmann Before Jerusalem by Bettina Stangneth - review." *The Guardian*, October 17.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4/oct/17/eichmann-before-jerusalem-bettina-stangneth-review> (검색일: 2025.9.28.).
- Faille, Christopher C. 2015. "Eichmann Before Jerusalem: The Unexamined Life of a Mass Murderer by Bettina Stangneth (review)." *The Federal Lawyer* (January/February). https://www.fedbar.org/wp-content/uploads/2015/01/online-book-reivews_JAN-rev-pdf-1.pdf (검색일: 2025.9.28.).
- Hauff, Lisa. 2012, "Die Richter im Eichmann-Prozess." In *Interessen um Eichmann. Israelische Justiz, deutsche Strafverfolgung und alte Kameradschaften*, edited by Renz Werner.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 Herbert, Ulrich. 2016. "Holocaust Research in Gernay: The history and Prospects of a Difficult Discipline." *German Yearbook of Contemporary History* 1. DOI: <http://doi.org/10.1353/gych/2016/0002>. (최종검색일: 2025.9.28.).
- Höss, Rudolf. 1992. *Death Dealer: The Memoirs of the SS Kommandant at Auschwitz*. Edited by Steven Paskuly. New York: Prometheus Books.
- Jones, L. E. 2018. "Hans Mommsen (1930-2015)." *Central European History* 51(2).
- Kelly, Michael. 2016. "Eichmann Before Jerusalem: The Unexamined Life of a Mass Murderer." *Holocaust and Genocide Studies* 30(1) DOI: 10.1093/hgs/dcw015.
- Krause, Peter. 2011. "Rezension zu: Stangneth, Bettina: Eichmann vor Jerusalem. Das unbehelligte Leben eines Massenmörders." *H-Soz-Kult*, September 2. <https://www.hsozkult.de/publicationreview/id/reb-15930>. (최종검색일: 2025.9.28.).
- Lewy, Guenter. 2017. *Perpetrators: The World of the Holocaust Kill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ntel, Christian. 2013. "Das Protokoll der Wannsee-Konferenz. Überlieferung,

- Veröffentlichung und revisionistische Infragestellung.” In *Die Wannsee-Konferenz am 20. Januar 1942. Dokumente, Forschungsstand, Kontroversen*, edited by Norbert Kampe and Peter Klein. Köln: Böhlau. <http://dx.doi.org/10.14765/zzf.dok.1.1151> (검색일: 2025.9.28.).
- Mommsen, Hans. 1999. “Future Challenges to Holocaust Scholarship as an Integrated Part of the Study of Modern Dictatorship.” J. B. and Maurice C. Shapiro Annual Lectur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December 13. <https://www.ushmm.org/m/pdfs/20050726-mommsen.pdf> (최종검색일: 2025.9.28.).
- Oppenheimer, M. 2023. “How do you make a movie about the Holocaust?”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9. <https://www.nytimes.com/2023/12/19/magazine/movies-holocaust-zone-of-interest.html> (검색일: 2025.9.28.).
- Schuessler, Jennifer. 2014. “Book Portrays Eichmann as Evil, but Not Banal.”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 <https://www.nytimes.com/2014/09/03/books/book-portrays-eichmann-as-evil-but-not-banal.html> (검색일: 2025.9.27.).
- Stangneth, Bettina. 2016. *Böses Denken*. Hamburg: Rowohlt.
- Welzer, Harald. 2005. *Täter: Wie aus ganz normalen Menschen Massenmörder werden*. Frankfurt am Main: Fischer Verlag.
- Wolin, Richard. 2014. “The Banality of Evil: The Demise of a Legend.” *Jewish Review of Books*, September 4. <https://jewishreviewofbooks.com/articles/1106/the-banality-of-evil-the-demise-of-a-legend/> (검색일: 2025.9.27.).
- Yad Vashem. 2016. “Extract From Written Evidence of Rudolf Hoss, Commander of the Auschwitz Extermination Camp.” The World Holocaust Remembrance Center. <https://www.yadvashem.org/docs/evidence-of-rudolf-hoss-on-auschwitz.html> (검색일: 2025.9.28.).
- Yad Vashem. 2023. “The Role of the Perpetrator and the Bystander in Human Rights Education” [PDF]. The World Holocaust Remembrance Center. <https://www.yadvashem.org/download/education/conf/Grunfeld.pdf> (최종검색일: 2025.9.28.).

Abstract

The Eichmann Controversy: The Banality Versus the Extraordinariness of Evil

Yong-suk Jung*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2025 Korean edition of Bettina Stangneth's *Eichmann Before Jerusalem*. By successfully demonstrating through extensive undisclosed sources, including the 'Sassen papers,' that Eichmann was a subject of 'evil thinking' who orchestrated the genocide out of conviction, Stangneth refutes Hannah Arendt's 'banality of evil' thesis based on 'thoughtlessness' and restores Eichmann as a historical figure. This article comparatively analyzes critiques of Stangneth's interpretation and the criticisms Arendt faced at the time of her publication, shedding light on their respective historical, social, and academic contexts. The purpose of this critiques is not to determine the superiority of one interpretation over the other, but to evaluate how both perspectives can complementaril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Holocaust perpetrators. To this end, it accesses the position of Stangneth's research within the historiography of perpetrator studies (Täterforschung). While her study contributes to perpetrator research by restoring Eichmann as a historical figure, it shares with Arendt's work the characteristic of an inherently 'ahistorical approach' by concentrating on individual-level analysis.

Key Words: Eichmann, Banality of Evil, Evil Thinking, Bettina Stangneth, Perpetrator Research (Täterforschung)

논문투고일: 2025. 09. 30.

논문심사일: 2025. 11. 10.

게재확정일: 2025. 11. 20.

* Associate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